

전북, 가뭄 '주의' 단계 진입 가능성

도, 이번주 중으로 판단... 비상대책반 구성·운영키로
시·군과 국비 등 투입 간이양수 등 급수대책 추진 중

전북도는 이번주 중 가뭄 주의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판단하고 가뭄피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가뭄비상대책반을 구성·운영 등 가뭄대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유래없는 폭염과 무강우가 지속되면서 '발 토양유효수분율'이 이미 '발 가뭄 주의단계'로 떨어진 상태에서, 최근 2개월 간 누적강수량이 평년

의 70%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현재 도내 농업용저수지에 총 4억4200만톤의 저수용량을 확보하고 있어 분담급수가 완료되는 9월말까지 용수공급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8월 7일부터 가뭄비상대책반을 운영키로 하고 14개 시·군 및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

본부 등에 공문을 보내 지역별 상황에 맞춰 가뭄에 적극 대응해 줄 것과 관계기관 협조체계가 유기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뭄대응태세를 강화해 줄 것을 주문할 계획이다.
도는 앞으로 가뭄비상대책반을 운영하게 됨에 따라 가뭄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근무체제를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앞으로의 기상상황 및 가뭄추이에 따라 가뭄상황관리(피해 상황 파악 및 적의조치) 및 가뭄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미 도와 시·군에서는 국비와 지방비 68억여원을 투입하여 888개소의

농업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대해 관정 개발, 간이양수, 하상굴착, 급수차 지원 등 급수대책 추진 중이며, 상습적인 가뭄발생 지역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특별교부세 42억원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도 최재용 농축수산물품목장은 "철저한 대응을 통해 가뭄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가뭄대응을 위한 국가예산 확대 교부 등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종 용수공급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추'
잘 익은 고추를 따리는 농부



24절기 중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 접어들다는 입추를 하루 앞둔 6일 익산시 여산면의 한 고추농장주인이 잘 익은 고추를 따리며 다가올 가을을 준비하고 있다.

미세먼지 걱정 '뚝' ... 맑은 공기 도시 조성 | 전주시, 추진방향·정책 등 논의

전주시가 시민들과 미세먼지로부터 걱정 없는 도시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시는 6일 전주시청에서 민선 7기 핵심과제 중 하나인 맑은 공기 도시 조성을 위해 환경·에너지·자동차·조경 등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 관계기관 업무 담당자, 관계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맑은 공기 선도도시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날이 심각해지면서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함께 공감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향과 다양한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제언했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대중교통과 에너지, 조경, 도시계획 각 분야별 대책은 물론이고 전체적인 방향에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 국가 정책적인 지원을 위해 전주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시는 미세먼지 문제를 민선 7기 최우선 과제로 전진배치하고 도시를 하나의 정원으로 만드는 민선7기 첫 결재사업인 '맑은 공기 도시, 가든 시티(Garden City) 조성'을 위한 1000만 그루 나무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의 1000만 그루 나무심기는 단순한 도심녹화 운동이 아닌, 미래 주역인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도시를 물려줄 것인가 하는 물음에서 시작된 사업으로 단 1평의 땅이라도 나무를 최우선적으로 심어 도시 전체를 아름다운 정원으로 조성해 시민들이 맑은 공기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사는 가든시티로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 이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심각하고 열섬현상으로 인해 가장 더운 지역 중 하나로 꼽히는 전주를 미세먼지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운 도시, 시원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미세먼지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지난 7월 상반기 조직개편과 정기인사를 통해 미세먼지 대응총괄추진단을 신설했다. 미세먼지대응총괄추진단에서는 향후 미세먼지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추진협의회 구성과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 수립, 맑은 공기 국가 선도 도시 지정 등, '1000만그루 가든시티 전주' 프로젝트 추진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전주시 맑은공기추진단 관계자는 "나날이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시민들의 숨 쉴 권리를 되찾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최대한 노력한다는 자세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평택~익산 잇는 민자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 걸려 '터덕'

환경부 노선 변경·공사 수정 등 요구에 민간사업자 측 "수용시 공사비 증액 불가피"

경기도 평택~전북 익산을 잇는 역대 최대규모의 민자고속도로사업이 환경영향평가에 걸려 터덕거리고 있다.
이 민자사업은 평택시~부여~익산을 잇는 총 연장 138.3km 왕복 4~6차선 규모로 사업비 만도 2조8000억원에 이를 정도다.

환경부가 지난해부터 서부내륙 고속도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인 가운데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지난 1월 환경영향평가서가 반려되자 이를 보완 제출해 재심사를 받고 있다.
환경부가 구간 중 환경에 영향을 미칠 구간에 대해 노선 변경과 공사 수

정 등을 요구한 반면 민간사업자 측에서는 이를 수용할 경우 공사비 증액을 피할 수 없어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업은 토지보상비를 국가가, 건설비는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진행된다.
당초 평택~부여를 잇는 1단계 공

사가 올해부터 2022년까지, 이어 부여~익산을 연결하는 2단계는 2028년부터 2032년까지 공할 예정이었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해야만 실시계획 승인 등 후속절차가 이뤄질 수 있는데 환경영향 평가가 늦어지면서 사업 추진 일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문화재청, 옛 군산세관 본관 사적 지정

빈해원 문화재로 등록

문화재청이 6일 옛 군산세관 본관을 사적으로 지정하고 중국음식점인 빈해원을 문화재로 등록했다.
사적 제545호로 지정된 군산세관 본관은 군산항에 1908년 건립된 건물로서, 당시 감시계 청사와 감시망루 등 다수의 시설물이 함께 있었으나 현재는 본관과 창고만 남아 있다.
개항 초기 우리나라에 도입된 서

양식 건축기법 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립 당시 건물의 원형도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다.
등록문화재 제723호로 지정된 빈해원은 1950년대 초부터 화교인 왕근석씨에 의해 창업돼 대를 이어온 중국 음식점으로서 1~2층이 개방된 내부공간이 특징이다.
근대 군산에 정착했던 화교 문화를 보여주는 건축물로서 가치가 있으며 보존상태도 양호하다. /뉴시스

축! 전주매일 창간

muju 무주군 www.muju.go.kr

별이 종종! 반딧불이 반짝반짝 빛나는

무주 반딧불 농·특산물

The 22nd Muju Firefly Festival
2018. 9. 1 (9) ~ 9. 9 (9)
무주군일원 (반딧불이축제위원회)

무주 반딧불 직거래장터에서 만나보세요!

깨끗한 자연에서 정성으로 키운 무주 반딧불 농·특산물은 품목별 작목반들과 농가에서 직접 구입하실 수 있으며, 사이버장터를 통해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mj1614.com
전 품목 무료택배

무주반딧불사이버장터

검색 이용문의 : 063)320-2770
063)322-0278